

전신성 홍반성 낭창(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정서연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혹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을 줄여서 루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질환의 이름은 늑대를 의미하는 라틴어(lupus)에 기원을 두고 있다. 늑대에 의하여 물리거나 긁힌 자국과 비슷한 피부발진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루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얼굴에 생긴 발진이 염증으로 인하여 빨강게 보인다는 것이 알려진 후 '홍반성 루푸스'라고 부르다가, 피부이외의 다른 장기에도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루푸스에는 전신 장기를 침범하지 않고 피부만 침범하는 피부 루푸스도 있다.

결합조직에 염증이 생겨 피부와 관절,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것

연령 : 16-5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성별 : 여성들에게 흔하다.

유전 : 때로 가족력을 보이며, 특정 민족에게 많이 나타난다.

생활습관 : 스트레스와 햇빛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가면역 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란 자신의 결합조직을 손상시키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면 조직을 둘러싸고 결합시키는 결합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른다. 신체의 일부만 손상시키는 경우부터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손상시키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증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나 스트레스, 햇빛 같은 요인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호르몬 요인도 관여하리라 생각된다. 간혹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흑인이나 아시아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비슷한 증상들이 히드랄라진과 클로르프로마진 같은 특정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간헐적으로 몇 주일마다 악화되다가 때로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호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 * 관절통과 관절 종창이 점점 더 심해진다.
- * 피부 발진이 생긴다. 특징적인 증상은 나비 모양의 홍반이 코와 뺨에 볼록하게 솟아오른다.
- * 햇빛에 매우 민감해진다(광과민성).
- * 쉽게 피곤해지고 열이 난다.
- * 가벼운 우울증이 생긴다.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도 보인다.

- * 흉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난다.
- * 신경계가 손상되어 두통, 경련 발작 또는 뇌졸중이 발생한다.
- * 심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흉통이 나타난다.
- * 탈모 증상이 나타난다.
- * 피부가 창백해진다.
- * 통증이 없는 구강 궤양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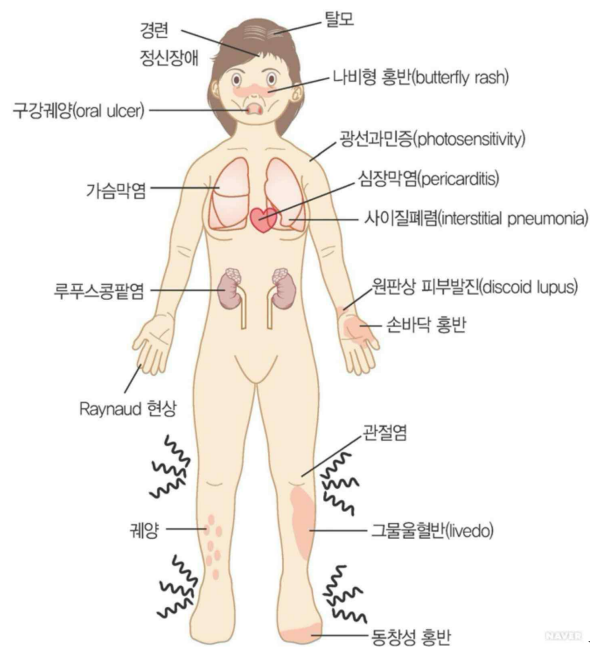


그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침범당하는 부위

